

마게도냐의 환상

행 16:4~10

우리의 삶은 계획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러나 삶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는 길이 막혀 있어 고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일치하지 않아 오랫동안 인내하기도 합니다. 그때 좌절하고 무너지는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비하심의 손길을 느낍니다. 이 사실은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배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정

본문 말씀은 아시아에서 출발한 복음이 서방 세계로 옮겨가는 첫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끊임없이 보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전진해야 한다는 사실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4,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의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4절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에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이방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자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볼 때,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예루살렘의 많은 지도자들이 모여 토론하고 논의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율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유대 남자 아기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할례 의식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나 외국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할례를 행하고 율법에 명한 대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찌니라”(행 15:29)고 결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외국인들을 할례나 율법 때문에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복음은 변함없지만, 복음이 증거 되는 지역의 문화나 역사에 어긋나지 않게 전파해야 함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 결정 이후 바울과 몇몇 사람들이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본문 5절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의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다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 온누리교회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첫째로 교회는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머뭇거리며 멈춰서거나 뒤를 돌아보아선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3천, 5천 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교회로 모여들어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교회가 계속 전진하기를 주저하고 자신들의 공동체로 안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예루살렘교회를 만방으

로 흡수되었습니다. 교회가 발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흡수버리십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사마리아,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안디옥교회는 부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교회는 안주하지 않았고 교회 지도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 전진해야 하지만 그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순례를 행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고 후퇴하지도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홍해를 만날 수도 있고 막다른 길에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극복하고 전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홍해를 갈라야 하고, 막다른 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전진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누리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온누리교회는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현 상태에서 만족감이 찾아들 때, 더욱 전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흡수시킬 것입니다.

유럽으로 전진하는 교회

둘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진해야 합니다. 6,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과 그의 일행이 가고자 하는 ‘비두니아’라는 곳은 ‘아시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 즉 터키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터키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예수님의 영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준비가 돼 있지 않아(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지 않으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배척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에 사로잡혀 입을 열 수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6, 7절 말씀을 통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지만, 이를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신 것은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뜻을 두십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잠 20:24).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 16:9).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뜻과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순탄한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아예 우리가 가는 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보다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은 나의 시간보다 정확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이 훗날 나아가거나 막다른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개인의 의지로 벗어나기 위해 술책이나 다른 방안을 일삼아선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결론이 최선임을 고백하고 다시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다

셋째로 교회는 지경을 넓혀 가야 합니다. 8, 9절 말씀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소아시아에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유럽이란 더 넓은 곳으로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세 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다녀옵니다. 1차전도여행은 작은 지역을 다녀옵니다. 2차전도여행은 유럽 지역까지 다녀옵니다. 3차전도여행은 로마와 ‘서바나’라는 스페인까지 다녀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없는 땅 끝까지 가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현실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세계로 지경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고향이나 아시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로마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의해 복음은 유럽으로 건너간 뒤 미국으로 전해졌고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복음은 북한, 중국을 거쳐 이슬람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전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지경을 넓혀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바꿔주심으로써 복음의 지경은 확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 초기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언더우드는 어렸을 때부터 중국에 대한 선교 소명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일본에서 선교하다가 오신 분의 소개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기로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조선에 가려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때 언더우드의 마음에 ‘왜 너는 못 가느냐, 왜 너는 가지 않으려 하느냐’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언더우드는 ‘중국’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중국으로 가는 길을 돌이켜 조선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한국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1993년에 인도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인도가 아닌 중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중국에 오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아주 특이하고 재미있는 답변을 원했지만, 저는 ‘물어보지 마세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꾸 물어봅니다. 결국 제가 한 대답은 ‘하 목사님이 가라고 하셔서 오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머물렀던 기간은 짧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인도에 가고자 했던 것이 중국으로 옮겨졌지만, 저와 가족에게 중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한 선교지였으며, 그곳

에 있는 동안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우리의 결론보다 낫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뜻과 계획보다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막혀 다른 길로 가는 것으로 인해 교회는 지경을 넓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지경을 넓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무 것도 알지 못한 채 환상 중에 보았던 마게도냐 사람의 권유로 유럽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전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

마지막으로 교회는 비전을 갖고 전진하며 지경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일에서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10절에 바울 일행은 즉시 마게도냐 빌립보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으면 흔히 은퇴한 후에, 돈을 좀더 번 후에 가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곧바로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기회가 항상 우리를 기다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일은 우리의 몸이 힘이 있을 때 해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도 곤하지 않을 때 선교사로 나가야 합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고, 그 때에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그 때에 즉시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께 순종과 헌신을 드릴 때 시간과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옳아야 합니다. 곧 주님의 비전을 따라 순종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환상을 본 후에 비전을 따라 갔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곧바로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은 머무는 곳이고 안주하는 곳이며 사명감도 없이 그냥 지내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많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함께 사역하시던 장로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분은 치과 의사이셨는데 50세가 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선교사로 가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치과의사로 유명해졌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졌으며 모든 것이 안정되었습니다. 50세가 되었을 때 집, 병원, 땅, 재산을 정리하고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 분은 여행을 많이 다니셨는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았던 지난 삶을 정리하기 위해 모아 두었던 사진들을 전부 태워버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권사님이 우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우시는 권사님에게 ‘여보, 이제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울 시간이 없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날 수 없습니다. 뒤를 돌아볼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에 주신 ‘ACTS 29 비전’을 이뤄나가는 일에 머뭇거리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이쯤이 좋다고 안주해서도 안 되고, 이 만큼이면 됐다며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비록 예배드릴 자리가 없을 정도로 풍족하더라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선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에 처음 말씀 사역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사역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기도 사역과 2천/1만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제 선교사 2천 명과 2천 교회를 세우는 ACTS 29 비전을 주셨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나가자는 비전입니다. 여기가 좋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전진해야 합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즉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나아갔던 것처럼 온누리교회는 서빙고에서 양재로 나아가 중국, 일본 등 땅 끝까지 이르러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전진해 지경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에 주신 비전을 끝까지 이루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누리교회가 계속 전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전을 갖고

지경을 넓혀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